

# 임산부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보건인식 실태

이숙정\* , 최규일\*\*

\*김천대학 치위생과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 A Study on the Oral Health Status and Oral Health Awareness of Pregnant Women

Sook-Jeong Lee\* , Gui-Yil Choi\*\*

\*Dept. of Dental Hygiene, Gim-Cheon College,

\*\*Department of education in Kyungnam University

### 요 약

본 논문은 임신의 시기가 내분비계의 변화로 인한 프로게스테론의 과잉분비가 발생하여 혈관의 투과성을 향진시켜 구강내의 잇몸 부종, 잇몸 출혈 등을 유발하고, 입덧으로 인한 메쓰꺼움, 몸의 무거움과 나른함, 음식 기호변화, 간식횟수의 증가 등을 겪게 되어 신체뿐 아니라 구강 환경 또한 변화하게 된다는 여러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임산부의 구강 건강상태와 구강보건인식을 파악하고자 2008년 12월 15일 ~ 2009년 1월 30일까지 18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건강상태와 구강보건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임산부의 생활수준, 분만경험, 임신시기에 따라 생활수준이 좋을수록, 분만경험이 없는 경우에서, 4-6개월 임신시기 시 구강건강상태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한 구강건강을 위한 우선 행위인 잇솔질에서의 교육 수준별, 생활 수준별, 임신 시기별로 식사 후 3회 정도의 잇솔질의 횟수가 유의미한 차이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잇솔질시 오심과 구토로 잇솔질이 어려운 임산부들의 구강상태 청결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보조구강위생용품으로는 치실, 구강 양치액, 혀 클리너, 치간 칫솔이 사용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자료들은 임신 시기 중 가장 고민된다고 답하여준 구강건강 부분에서의 입덧으로 인한 잇솔질의 어려움, 잇몸출혈, 충치,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의 적정시기, 구취 등의 부분을 임산부 대상의 구강보건교육 시 기존의 자료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 서론

임산부는 내분비계의 변화로 육체적, 정신적 변화를 일으키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중 임산부의 구강에 발생하는 변화는 곧 모체의 영양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는 곧 태아의 성장과 발육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치면세균막에 의해 야기되는 치은염과 구별할 수 없는 임신성 치은염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입덧과 오심, 구토 등으로 구강위생상태가 악화되어 치아우식증의 발생과 치주질환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임신 기간동안 치아우식과 치주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출산 후의 산모의 전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강건강 상담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임산부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보건인식을 조사해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임산부의 구강건강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안하고 나아가 임산부를 위한 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임신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구강내의 잇몸 부종, 잇몸 출혈과 입덧으로 인한 메쓰꺼움, 구토,

몸의 무거움과 나른함, 음식 기호변화, 간식횟수의 증가 등의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구강 환경 변화에 대한 임신부 스스로의 건강상태 인지와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기 위한 구강보건의 인지 정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08년 12월 15일 ~ 2009년 1월 30일까지 180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집된 자료는 SPSS12.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카이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1. 임신부의 전신건강상태는 생활수준에 따라 현재 전신건강상태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상(M=4.20)이 중(M=3.64)과 하(M=3.29)보다 현재전신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F=4.695,  $p < .05$ ), 생활수준이 좋을수록 전신건강상태도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2. 간식횟수는 '하루에 2-3번 이상'의 응답이 73명(40.6%), '하루에 1번정도', '일주일에 한번'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간식 맛은 '단맛'의 응답이 67명(3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백한 맛', '신맛'의 순으로 나타났다.
3. 현재 구강상태는 생활수준, 분만경험, 임신시기에 따라 구강건강상태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생활수준이 상(M=3.70)이 중(M=3.34)와 하(M=2.90)보다 현재구강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F=4.032,  $p < .05$ ), 생활수준이 좋을수록 구강건강상태도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4. 구취와 구강건조 조사결과 구취는 '가끔 구취를 느낀다'의 응답이 107명(59.4%)로 가장 많았고, 구강건조 역시 '가끔 구강건조의 상태를 느낀다'의 응답이 102명(56.7%)로 가장 많았다.
5. 잇솔질 횟수는 '식사후 3회'가 100명(76.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별, 생활수준별, 임신시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육수준별로 대졸이상과 전문대졸이 '식사후 3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은 '아침 저녁 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활수준별로는 생활수준 상과 중은 '식사 후 3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수준 하는 '아침저녁 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신시기별 모두 '식사 후 3회'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6. 잇솔질 중 오심과 구토 시 잇솔질 진행여부는 전체적으로 '그만 한다'의 응답이 28명(53.8%)로 높게 나타났다.
7. 보조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식여부는 '알고 있다'가 147명(81.7%)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든 생활수준별로 '보조구강용품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높게 나타났다. 보조구강위생용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가장 많이 사용한 보조구강위생용품은 '이쑤시개' 89명(43.2%)였고, 다음으로 '치실' 54명(26.2%)였으며, '구강양치액' 26명(12.6%), '혀클리너', '치간칫솔'의 순이었다. 오심과 구토시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는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가 122명(8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생활수준별로 '상'은 '사용한다'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중'과 '하'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높게 나타났다.
8. 임신 중 치과진료수용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아니오'의 응답이 151명(8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신 중 치과치료의 거부 이유는 전체적으로 '태아에 악영향'이 100명(76.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활수준별, 임신시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든 생활수준별로 '태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형아 유발'이 높게 나타났다. 임신시기별로는 역시 '태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9. 임신중 치과치료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는 '임신 중 치과치료의 경험이 없다'의 응답이 164명(91.1%)로 높게 나타났다. '임신 중 치과치료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16명(8.9%)에 대해서 치과치료의 종류는 충치치료 6명(3.3%), 스켈링 4명(2.2%), 잇몸치료 2명(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검진'과 '잇몸이 잘 부어서 받아본 적 있음'으로 나타났다.
10. 임신 중 구강건강에서 가장 많은 고민은 '입덧으로 인한 잇솔질의 어려움', '잇몸출혈', '충치'의 순이었다. 또한 '임산부의 구강질환의 적정치료시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구강보건교육 경험유무는 '구강보건의 경험이 없다'가 167명(92.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4. 결론

임산부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을 위해 임신 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잘 관리하여 건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10개월의 긴 기간을 견뎌야 하는 과정이므로 철저한 건강 관리는 물론 잘못된 잇솔질이나 여러 간식 섭취후의 구강 위생 관리저하로 발생되어지는 치과관련 질환도 잘 관리되어야 한다. 본 설문에서 연령별과 교육수준별, 생활수준별, 분만경험, 임신시기별로 살펴본 임산부의 구강관리 상태와 구강보건 인식은 첫째, 일상적인 치과치료는 대개 안전하지만 대부분 치과치료행위에 대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 잘못 알고 있는 치과상식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임산부들의 구강보건인식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들의 효율적인 구강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침서, 잘못알고 있는 치과상식들의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임신 중 구강질환 발생 시 임신 개월 수에 알맞은 구강 질환의 종류 및 관리방법 등을 충분히 교육시켜야 하며 임신기간동안 수주 또는 매월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임산부의 구강건강 증진과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이가연, 원복연, “일부지역 임산부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제9권, 제1호, pp. 1-14, 2009.
- [2] 구경미 외, “구강보건교육학”, 고문사, 제2판, 제1호, pp. 141-146, 2008.
- [3] 박영남, 심정신, “일부 지역 임산부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제8권, 제3호, pp. 53-64, 2008.
- [4] 문혁수 외, “지역사회구강보건 현장실습”, 고문사, pp. 195, 2000.
- [5] Zisken DE, Blackberg SN, Stout AP, “The gingival during pregnancy”, *Sung Gynec Obstet*, 57, pp. 719-726, 1993.
- [6] Arafat AH, “Periodontal status during the pregnancy”. *J Periodant* 45, pp. 641-643, 1974.